

예수교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 재 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믿고 순종하는 교회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항상 기도제목

-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제

■ 2022년도 기도제목

- 1) 불가능이 없는 믿음 (마가복음 9:23)
- 2) 거룩한 자녀 (데살로니가전서 4:3, 디모데전서 4:5)
- 3)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마태복음 21:12~13)
- 4) 재창조의 권능 100% (에스겔 37:4~10)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이수진(당회장 직무대행)
(남) 안성현 조대희 조혁희 조수열
주현철 정규원 김영식3 장성식
정현진 이풍근 임학영 박광현
이석규 정진영 조성도 노영진
(여) 이미경 최형자 이미영 이성숙
황금란

선교 목사/ 페르난도 보르본

협동 목사/ 문신현

전 도 사/ 김영순 권영남 차경숙 최영신
이영인 황미경 최성숙 서덕분
박금미 오인숙 곽윤진 윤영자
임금선 황미선 조은영 강순길
정영임 임해숙 문순미 장정미
류순주 고경아 최시은 김진주

평신도 교역자/ 김복례 권순희

기도원 교역자/ 김영식3

지교회 교역자/ 문태규 정철수 이행엽 박홍영
김요한 강승표 박형렬 박재영
최제수 서진범 김창숙 박종대
황병덕 오환준 김혜경 차전환
강영식 이성철 윤진영 김정오
김상휘

해외선교사/ 아프리카: 정영호, 김중훈
폴 무사파리 날완고(협력), 자코 네마 사카텐다(협력)
일 본: 정경태, 도끼꾸니 야스히로, 고마쯔 미끼, 도끼꾸니 미야고
중 남 미: 페루·콜롬비아 장정연, 온두라스 에스테인 할달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미 국: 남상송, 마크 바질레르
캐 나 다: 이성일
영 국: 제인 음폴로고마, 데이빗 무카사
독 일: 이바울
몰 도 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비탈리 따바라누
대 만: 김경희
필 리 판: 조찬형, 성 속, 김은자, 김주범
인 도: 김삼휘
몽 골: 발차릭 무레브, 양흐바아르 간바타르
말레이시아: 지정훈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파키스탄: 윌슨 존 길, 타리크 지야
중 동: 보나 시무아탈라 은심바,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에스토니아: 그리고리 콜레스트

원로 장로/ 이정호
장 로/ 반성건 이동림 최중태 이주월 추오동 이시헌 박광호 유익선 최정수
오세영 박영준 정안권 박노철 김왕기 박현재 박경춘 최을호 김대석
성낙훈 김홍만 김규식 송왕근 김진희 송석길 이강준 장영규 이익석
임영석 김종태 김용석 정택수 조효용 윤성식 김기호 박홍열 박영갑
김봉완 홍명일 김준호 이강복 김용덕 윤창수 이재환 권태봉 채윤석
김석환 진교성 황병현 박성준 최병승 이덕형 최희승 허은범 정태찬
고광규 임종서 서희석 신상문 정성규 김부삼 정성식 이상원 마문국
마수용 이용석 김한구 김순오 마문복 유승열 손영관 윤부열 박종웅
송영현 이성익 정영호 정용필

명예 장로/ 김영선 김세원 윤석재 강재관 김영조 이성철 마광희 장세웅 서근중
최신일 한병용 나종규 이기완 한홍렬 김재규 한광현 심상식 오성준
하문복 허영목 배철효 김영남 서상기 문경진 박진무

협동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정용재

지 휘 자/ 임마누엘 성가대: 김한구 살롬 성가대: 박종웅
나 사 렛 성가대: 이영철 금빛 성가대: 이영철
흰 들 성가대: 서승현 넋시오케스트라: 김한구

반 주 자/ 민연홍 김서영 이현미 손은혜 김선자(오르간) 김보석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23장 1절	다 같 이
* 성시교독 48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다 같 이
찬 송 182장	다 같 이
기 도	황금란 목사
성경봉독 로마서 8:12~16	사 회 자
찬 양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7)	당회장님
기 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영상	당회장님
찬 송 만민 찬양 159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사 회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영상	당회장님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노영진 목사

대표기도	이영인 전도사
성경봉독	욥기 11:1~11/ 사회자
찬양	살아 계신 주/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송	손영락 장르
설교	욥기 강해(25) - 말의 중요성, 허망한 사람/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박광현 목사

대표기도	이형진 집사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2:14~15/ 사회자
찬양	금빛성가대
설교	그리스도의 향기/ 이미경 목사

금요 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사회/ 임학영 목사

대표기도	이미영 목사
성경봉독	사사기 9:7~15/ 사회자
찬양	임마누엘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설교	요동하지 말라/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 은사집회 -

2-9회 성령 충만 다니엘 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11시 (금요일은 제외)
 인도/ 이복남 원장
 기간/ 9월 19일(월) ~ 10월 2일(주일)
 주제/ 치료와 응답을 위한 성령 충만 다니엘 철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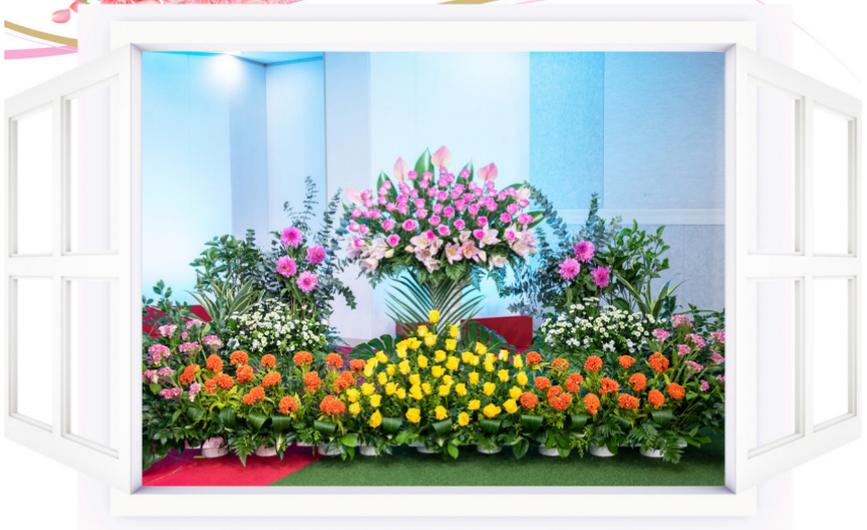
새벽 예배

※ 추후 공지 시까지 새벽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주 예배 위원

예배	사회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정진영 목사	최영자 목사
주일 저녁예배	문신현 목사	김영순 전도사
수요 예배	정진영 목사	황미경 전도사
금요 철야예배	장성식 목사	서진범 목사

강단헌화
갤러리



제 목 :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6)

본 문 : 롬 8:12~16

오늘은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각각 어떻게 사람을 주관하는지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각각 사람을 주관하는 방법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전 삼아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한 대로이지요. 곧 성령은 마음 안의 진리를 주관합니다.

반면에 사단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밖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한 대로 사단은 공중에서 역사합니다. 마치 전파를 보내듯이 공중에 사단의 마음과 능력을 흩뿌려 놓으므로 마음 안의 비진리는 안테나처럼 이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지요. 비진리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받아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기억 장치에 입력된 지식 중에서 비진리의 지식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 사단의 음성을 들려주지요.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생각’은 대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안방이라고 할 때 대문을 통과해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안방에도 들어갈 수 있지요. 안방은 바로 우리 ‘마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자신의 음성을 침투시켜 그 마음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려고 항상 노리는 사단은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해서 대문을 열어 주면 ‘이때다.’ 하고 어찌하든 생각의 문을 통해 마음으로 침투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성령은 외부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좌정해 계십니다. 사단이 집 밖에 있다면 성령은 안방에 계신 것이지요. 마음 안에서 그 사람 마음에 일궈진 진리를 활용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생각의 문을 통과하실 필요 없이 마음에서 곧바로 음성을 들려주시지요.

그런데 혹시 이 설명을 들으시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심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생각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통해 ‘구원의 도’

와 '내세'에 대해 알려 주시며 각 사람 생각의 문을 두드리시지요. 이때 생각의 문을 여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이 참인가? 하나님이 진정 살아 계시는가? 천국이 있을까?' 등등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복음을 긍정하고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과 하나이신 성령이 마음에 임하시지요. 이렇게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늘 함께 거하시니 더 이상 생각의 문을 통해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사단의 음성이 사람에게 더 빨리 전달되는 이유

사단이 주관하는 육신의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고 성령의 음성은 마음에서 옵니다. 그러니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단의 음성보다 성령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외부에서 역사하고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한은 육신의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비진리가 많을수록 육신의 생각이 더 빨리 떠오르지요. 즉 사단의 음성이 사람에게 더 빨리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은 마음과 머리 중 머리로 먼저 전달됩니다. 보는 것은 시신경을 통해, 듣는 것은 청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되지요. 뇌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사람은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엇을 보고 들으면 머리의 생각이 먼저 작용하지요. 비진리의 지식이 많이 입력되었다면 생각 중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주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비진리를 다 버린 진리의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들으면 그것이 생각으로 즉각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마음에 전달되지요. 물론 본 것이 시신경을 통해, 들은 것이 청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되는 경로는 비진리의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즉 영이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해도 마음에서 울리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생각합니다.

보고 들은 어떤 정보가 머리에서 즉시 생각으로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거쳐서 재생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의 주관에 따라 영에 속한 진리의 생각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아 영이 살아나기는 했는데 아직 마음에 비진리가 있으면 어떨까요? 무엇을 보고 들었을 때 성령은 마음을 주관하시지만 비진리가 있으면 그 주관을 받기에 앞서 육신의 생각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면 성령의 음성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3.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할 마음 가져야

마음에서 비진리가 없어지면 머리에서도 비진리의 지식이 지워집니다. 육신의 생각도 없어지지요. 육신의 생각을 떠올리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에 부닥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더 이상 사단의 주관을 받지 않지요. 사단이 주관할 근거 자체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어떤 상황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단의 주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대문, 곧 생각의 문을 사단에게는 결코 열어 주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음성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오직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비진리를 벗고 진리를 채우는 만큼 사단의 음성이 점점 작아지고, 성령의 음성은 점점 커집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진리와 비진리가 각각 80퍼센트, 20퍼센트 라면 그때는 성령의 음성이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사단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해도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만 듣게 되지요. 성령의 음성이 훨씬 더 또렷하고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육을 다 버렸다고 해도 그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사단의 음성이 세 미하게나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기 때문에 그 희미한 사단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그런데 반대로 사단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보다 좀 더 크게 들리는 경우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초신자라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행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지요. 그러면 비진리도 신속하게 버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모함입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할 마음이라면 성령의 음성이 미세해도 듣게 됩니다. 반면에 진리와 비진리가 대등해도 사모함이 적고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요.

4.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단계가 나뉘는 육신의 생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도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마음에 일군 진리의 분량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깨뜨려야 할 육신의 생각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깨뜨려야 하는 육신의 생각 중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지요. 세상의 많은 사람이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구원받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하지요.

이 육신의 생각은 대부분 세상 지식과 이론 등에서 비롯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했습니다. 세상 이론이나 지식, 인간적인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이 그만큼 많이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을 전도하면 복음을 단번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 지식이나 이론에서 나오는 생각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지요. 그런데 세상 지식에 따르면 생명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 결합에 의해 잉태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의 생각이 들지요.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런 생각을 물고 늘어지며 육신의 생각을 부추깁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의문을 가진 정도였다면 점점 ‘거짓말이다. 황당한 일이다.’ 이런 판단, 정죄로 발전하게 되지요. 그 결과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無) 상태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만물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이 진화론을 믿습니다. ‘천지 창조’라는 실제 사건을 하나의 신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신이 배운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론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해와 달이 같은 위치에 일정 시간 동안 머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에 따르면 해와 달은 멈출 수 없습니다. 만약 멈춘다면 지구는 엄청난 타격을 받지요. 그런데 영의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 육의 공간을 영의 공간으로 덧입히면 지구에 어떤 충격도 주지 않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와 달이 멈추면 지구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이론은 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성경에 기록된 기사를 부인한다면 이 지식은 무익한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생각을 낳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전에 쌓은 세상 지식과 이론을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한 대로이지요.

그런데 전도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이 세상 지식은 고상하고 주를 아는 지식, 곧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고전 1:21). 전도하는 여러분을 어리석게 여기고 거짓말쟁이로 만들기도 하지요. 자신의 지식과 아는 이론에 비춰 보면 도무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평안과 축복의 길을 밝히 보여 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보화인 ‘천국’을 얻는 길을 알려 주지요. 잠시 잠깐 후면 쓸모없어질 세상 지식이나 육신의 생각을 낳아 사망으로 인도하는 헛된 지식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이론, 지식, 생각을 파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것입니다.

제 목 : 욥기강해(24)

본 문 : 욥기 10:13~22

오늘은 욥이 교만과 무지 가운데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앞에 아는 체하는 욥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욥 10:13~14)

이는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한 말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복도 주시며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저에게 환난을 내릴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안다”며 또다시 아는 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안다고 하는 자체가 무서운 교만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밝히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한다면 축복이지만, 욥처럼 알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18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만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선봉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항상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욥이 말한 대로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중심에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욥이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라고 한 것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욥은 마치 한번 범죄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용서해 주시며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18)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단, 반드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할 때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요일 1:7).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올 것

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다”(욘 10:15)

여기서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이는 당연한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온 백성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든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선한 다윗을 시기하여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죽이려 한 사울왕. 스승인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 등 악한 사람의 결말은 하나같이 비참했습니다.

혹 악한 사람이 잠시 흥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시 1:5).

욘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의롭고 선한 사람이고,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심한 악창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친구들조차 욘을 정죄하며 멀리 천대하는 현실이 심히도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사업에 성공하여 평평거리며 살아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병까지 들면 얼마나 부끄러워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비록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사람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요일 3:21~22, 요일 5:14). 그러니 어려움이 있다고 숨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지요. 결국 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2. 사자처럼 무자비한 하나님이라며 원망하는 욘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군대가 갈마들여 치는 것 같으니이다”(욘 10:16~17)

‘내가 머리를 높이 든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교만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욘이 자신을 교만하다는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좀 아는 체하고 옳다고 주장하고 따지면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자신을 사냥하신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요.

욘은 어이없게도 하나님을 사나운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굶주릴 때 먹이를 사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아온 자신을 무자비하게 움키고 괴롭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또 “주께서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신다” 했는데, 욘이 옳다고 따지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으로 고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에게 사냥당하는 것처럼 온몸의 악창에서 심한 피고름이 나오고 몸이 더욱 고통스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시험 환난이 왔다면 회개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합당치 않은 말을 쏟아내며 악을 발할수록 더욱 곤고해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더구나 원수도 아

닌 사람을,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고 서로 다투다면 내 안의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니 곤고해질 수밖에 없지요.

잠언 16:7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으니, 설령 애매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선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좇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원수 마귀가 물러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까.

옴은 능력의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도 여전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환난이 왔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시 50:15, 약 5:13, 시 34:4, 시 50:23).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좇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므로 얽히고설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분이요.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란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갈마들다”라는 말은 “서로 번갈아 들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리는 사자들을 번갈아 보내어 자신을 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잘 훈련된 군대가 번갈아 공격해 오는 것처럼, 옴이라는 목표물을 향해 무섭게 진노를 퍼붓고 계시다는 말이지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쩐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옴 10:18~19)

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인간에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근본의 씨를 주셨지만 자식을 낳고, 낳지 않고는 부모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도록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영계의 법칙 안에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나 사업, 가정 문제 등 매사에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로 인해 연단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말씀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이 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만일 어떤 재상이나 저주가 임했다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사단의 송사를 받아 자초한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 담이 되었는지 기도하며 찾아서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3. 내세에 대해 알지 못하는 욥의 하소연

“내 날은 적지 아니 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욥 10:20~22)

욥은 “하나님, 나는 나이도 많고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제발 이 땅에 살아가는 잠시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해 주세요. 내가 죽어서 가게 될 땅은 어둡고 침침하며 소망이 없는 곳이니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나 좀 고통받지 않고 살다가 죽게 해 주세요.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욥은 마치 내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란 조금도 없었지요.

만일 욥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도 지옥도 없고 그저 사람이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세상과 짝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9)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또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지, 반대로 지옥은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 환난이 와도 읊처럼 원망,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변화의 열매로 나와야 하지요. 연단을 통해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며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달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연단의 시간에 더욱 선과 진리를 좇아 행합니다. 그것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8-9) 말씀하셨으니, 작고 짧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믿음과 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해하는 참 자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읽을 말씀 / 마태복음 11:12

외울 말씀 / 마태복음 11:12

참고 말씀 / 마태복음 13:31

교육 내용 /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믿음으로 침노하여 소유하게 한다.

올림픽에서 우승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 때의 기쁨은 생애 최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 뼈를 깎는 듯한 훈련을 잘 견디어 낸 눈물과 땀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도 상을 받기 위해 자신을 절제하고 고통을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하물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1. 믿음으로 침노하는 천국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에 대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 11:12)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원수 마귀 사단이 근접할 수도 없는 빛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다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 마귀 사단과 싸워 이김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사람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훼방합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요.

이러한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최후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원수 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성결을 이루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므로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역을 이루시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약 시대를 의미하지요.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았습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 행해야 했고, 지키지 못하여 죄를 범했을 때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사함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신약 시대는 율법대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아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니 죄를 지어도 입술로 “주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한 대로 신약 시대에는 행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악을 품은 자체로 죄가 성립됩니다. 하물며 행위적으로 죄를 범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에 ‘현저히 육체의 일을 하는 자’ 곧 음행, 호색, 우상 숭배, 분쟁, 투기, 방탕함 등 행함으로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을 성장시켜 행위적인 죄는 물론, 마음의 악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보다 구원받기가 더 어려울까요? 구약 시대에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야 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버릴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 나가지요. 행위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죄의 성질도 버리며 성결한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버리거나 변화될 수 없지만, 주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능히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을 믿기 전에는 술, 담배를 끊는 것이 힘들었는데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죄를 버리고자 노력해 갈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행위적인 죄는 물론 마음속에 있는 죄성까지 뽑아 버리게 되지요. 이처럼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를 버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3.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려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곳을 사모하여 침노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 영의 하늘에 속해 있으며, 영의 하늘은 육의 하늘과 차원이 다른 영역이지요. 영의 하늘도 다시 여러 하늘로 나뉩니다(느 9:6 ; 왕상 8:27).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의 영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말씀합니다. 셋째 하늘이 있으면 첫째, 둘째 하늘도 있고 그 이상의 하늘도 존재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하늘 중에서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은 바로 천국이 있는 하늘이지요. 그리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합니다(고후 12:4). 즉 사도 바울은 천국이 있는 셋째 하늘 중에서도 낙원을 보았는데 이를 차마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낙원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죽음 직전에 주님을 영접한 한편 강도와 같이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일도 없어 상급이 없는 사람이 가는 곳으로 천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의 처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가장 영화로운 처소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마음의 성결을 온전히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에는 겨우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가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소인 낙원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닮아 온 영의 마음을 이룬 성도가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처소가 있으며,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처소가 결정됩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며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만큼 더 좋은 천국 처소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해 빼앗는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했습니다. 갓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 씨를 자신의 마음 밭에 심고 열심히 가꾸면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울창한 나무와 같이 큰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큰 나무에 많은 새가 깃들이듯이 믿음이 큰 사람은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큰 사람은 수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영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며 행복한 것을 상상한다고 해도 천국에서 가장 낮은 처소인 낙원의 삶과도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과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해 알수록 이 땅의 것이 헛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 자신의 천국 처소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부지런히 천국을 침노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세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란 ()의 시대,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약 시대를 의미한다.
2. 천국을 침노해 빼앗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3.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외워 봅시다.
“세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 금주 과제

〈지난주 설교 요약, 구역공과〉 읽고 복습하기.

● 알고 넘어갑시다!

◆ ‘하늘들(렘 51:15 ; 시 68:33)’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은 크게 넷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하늘’은 이 땅에 속한 육의 세계를 말한다.
‘둘째 하늘’은 ‘공중’(살전 4:17)으로 표현되며,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으로 나뉜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까지 살았던
에덴동산과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신 후 혼인 잔치 하는 공간이
빛의 영역이라면, 악한 영들이 거하는 곳이 어둠의 영역이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갈 천국이 있는 곳이다.
낙원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처소가 있다.
‘넷째 하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이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2-818-7241)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134-130번지)
2교구장	권영남	구로구(가리봉동 89-133번지, 구로3동 125-252번지, 구로3동 1123-125, 1274번지)
3교구장	장정미	구로구(가리봉2동,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256, 773-851, 1271, 1278-1279번지,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
4교구장	최영신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향동, 은수동, 궁동)
5교구장	이석규	영등포구
6교구장	류순주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7교구장	이성숙	금천구(가산동)
8교구장	김영순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9교구장	최영자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온사동, 옥길동)
10교구장	안성현	광명시(하인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1교구장	조은영	동작구(삼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노량진동)
12교구장	임학영	동작구(신대방1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정진영	관악구
14교구장	서덕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15교구장	문신현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6교구장	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17교구장	차경숙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18교구장	황미경	안산시, 시흥시
19교구장	박광현	부천시
20교구장	이영인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21교구장	이풍근	인천시

중국대교구장: 황금란

중국1교구장	정규원	중국동포 구로구
중국2교구장	오인숙	중국동포 서울시(구로구 제외), 경기도
중국3교구장	윤영자	중국인
해외교구장	문신현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님
문의전화/ 02-818-7102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 소식

- 당회장님의 저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스웨덴어 종이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 신앙칼럼이 「기독교신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지난 2022년 9월 14일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연맹 (회장: 안드레 가지로우스키 박사)
제15회 창립기념 행사에서 야엘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영상 축하인사 메시지가 방영되었습니다.
- 만민뉴스 한글(977호), 영어(727호), 중국어(601호), 우르두어(97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9월 은사집회가 9월 30일 금요일아침 10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인도로 있습니다.
준비찬양은 오후 10시 40분부터 시작하며 실시간 간증접수를 받습니다(☎ 02-818-7300).
아직 환자접수를 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오늘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2022 만민찬양제」가 10월 9일(주일) 오후 1시 10분에
신학교 스튜디오에서 GCN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마음에 진한 감동과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추천도서는 「젓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림북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 레위 직원 조화가 9월 26일(월) 오전 9시 30분에 신학교 3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레위 직원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회장님 저서를(주보 맨 뒷장 참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에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교회 소식**

춘천만민성결교회(담임 강영식 목사) 창립 22주년 기념예배

※ 일시: 10월 3일(월) 오후 3시

※ 강사: 이미경 목사, 특송: 서승원 집사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강노을 자매(2청년/ 14교구 강용권 성도 · 성경란 권사의 자녀)/ 10월 1일(토) 낮 12시 10분
영등포 위더스 6층 「메리엘컨벤션홀」

이은영37 집사(3청년/ 13교구 이형 집사 · 최향자 권사의 자녀)/ 10월 1일(토) 오후 6시 10분
신도림 테크노마트 7층 「웨스턴 베니비스 그레이스홀」

- **감사드립니다.**

강단헌화/ 마산만민교회 장복내 권사 가족(꽃꽂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시설관리국)

— << 교구별 현장예배 장소 >> —

일 정		신학교 예배실	사택 예배실
9월 25일	대예배	1~6 교구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저녁예배	7~10 교구	중국대교구
10월 2일	대예배	7~10 교구	1~6 교구
	저녁예배	중국대교구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10월 9일	대예배	중국대교구	7~10 교구
	저녁예배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1~6 교구
10월 16일	대예배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지성전은 현장예배	
	저녁예배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창립예배	

지성전	주 소	담당/연락처
강 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검 단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차경숙 전도사 010-2290-1856
부 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북 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문신현 목사 010-7736-9333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세신빌딩 401호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이영인 전도사 010-4820-1700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황미경 전도사 010-9636-7977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이 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 B/D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GCN,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9/25 일

- 00:00 - '일곱교회 9' 이재록 목사
- 05:00 - '욥기 강해 17' 이수진 목사
- 14:00 - '우리 삶의 등불 115' 이재록 목사
- 18:30 - '양순의 마음' 문태규 목사

9/26 월

- 01:00 - '스트레스를 이기자' 이수진 목사
- 07:05 - '요한계시록 강해 58' 이재록 목사
- 08:00 - '창세기 강해 83' 이재록 목사
- 13:00 - '젓과 꿀이 흐르는 땅 7' 이수진 목사
- 15:30 - '믿음을 척량하시니 8' 이재록 목사
- 19:30 - '우리 삶의 등불 54' 이재록 목사

9/27 화

- 01:00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10' 이수진 목사
- 08:00 - '창세기 강해 84' 이재록 목사
- 10:20 - '사랑 3' 이재록 목사
- 12:05 - '십자가의 도 19' 이재록 목사
- 13:00 - '젓과 꿀이 흐르는 땅 8' 이수진 목사
- 15:30 - '믿음을 척량하시니 9' 이재록 목사
- 18:00 - '욥기 강해 18' 이수진 목사
- 19:00 - 구역 공과 12

9/28 수

- 00:00 - '일곱교회 12' 이재록 목사
- 01:00 -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6'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05:00 - '요한계시록 강해 50'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12:05 - '십자가의 도 20' 이재록 목사
- 13:00 - '십계명 4' 이재록 목사
- 15:30 - '믿음을 척량하시니 10' 이재록 목사
- 17:00 - '요한계시록 강해 60' 이재록 목사
- 18:00 - '우리 삶의 등불 57' 이재록 목사

9/29 목

- 01:00 - '욥기 강해 24' 이수진 목사
- 07:05 - '요한계시록 강해 61' 이재록 목사
- 08:00 - '창세기 강해 86' 이재록 목사
- 10:20 - '사랑 5' 이재록 목사
- 12:05 - '십자가의 도 21' 이재록 목사
- 13:00 - '십계명 5' 이재록 목사
- 15:30 - '믿음을 척량하시니 11' 이재록 목사
- 19:20 - '욥기 강해 7' 이수진 목사

9/30 금

- 08:00 - '창세기 강해 87' 이재록 목사
- 10:20 -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 이재록 목사
- 14:00 - '일곱교회 13' 이재록 목사
- 17:00 - '요한계시록 강해 62' 이재록 목사
- 19:00 - 천지창조의 섭리 30
- 20:40 - 뉴욕 연합대성회 1

10/1 토

- 07:05 - '요한계시록 강해 63, 64' 이재록 목사
- 10:00 -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자' 이재록 목사
- 12:05 - '십자가의 도 23' 이재록 목사
- 19:40 - '우리 삶의 등불 116'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02-824-7107, 1577-2073 / webmaster@gcntv.org

※ KT olleh tv 882번 및 유튜브 GCN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 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 20분
- 3분 설교_ 30분
- 환자 기도_ 40번, 41번(영어), 42번(영어), 43번(중국어)
- 찬양_ 50, 60번
- 하루를 마치는 기도_ 70분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KT olleh tv 882번,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 오후 3시/ 수요예배_ 오후 7시
금요일아예배_ 오후 11시
다니엘 철야 기도회_ 매일 오후 9시
- ▶ 기타 녹화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anmin.org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m.manmin.org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gcntv.org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m.gcntv.org

- Sep. 25(Sun.)

(1 Corinthians 11:1) “Be imitators of me, just as I also am of Christ.”

- Sep. 26(Mon.)

(Galatians 6:1) “Brethren, even if anyone is caught in any trespass, you who are spiritual, restore such a one in a spirit of gentleness; each one looking to yourself, so that you too will not be tempted.”

- Sep. 27(Tue.)

(1 Peter 1:9) “Obtaining as the outcome of your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s.”

- Sep. 28(Wed.)

(Malachi 4:2) “But for you who fear My name, the su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and you will go forth and skip about like calves from the stall.”

- Sep. 29(Thu.)

(Matthew 1:21) “She will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 Sep. 30(Fri.)

(Matthew 5:3)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 Oct. 1(Sat.)

(Matthew 5:4)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금주의 성경구절

9월 25일(주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고전 11:1)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9월 26일(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갈 6:1)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9월 27일(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벧전 1:9)

9월 28일(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말 4:2)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9월 29일(목)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마 1:21)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9월 30일(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 5:3)

10월 1일(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 5:4)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이재록 목사 간증 수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
지옥
영혼옥 (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 (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음기강해
고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아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개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년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입문편 1
내가 사행하리니/ 입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실천편 2
권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람이 나의 빛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엘리아를 나뉘게 보내리니/ 성경 인물 시리즈 4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재설교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 2. 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 3. 예배편
사랑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 4. 기도편
치료하는 영약이요/ ... 5. 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 6. 심경편
참된 복을 좇는 자/ ... 7. 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 8. 열재양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지혜의 샘/ 장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네딕도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지혜의 샘 (상·하)/
사명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갈옷을 내어 버리라/ ...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 3
옛새 동안의 만나 (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간추었던 만나 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 3
하나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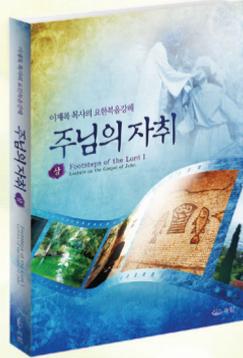
9월 추천도서

이재록 목사의 요한복음강해

주님의 자취

상

Footsteps of the Lord
Lecture on the Gospel of John



2022. 9. 1.(목) - 9. 30.(금)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갈릴리아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회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한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이동용(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오
하나님의 법도/ 심경
성령의 열매를 맺어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선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학생용(청소년 Bible Study)
젓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상!
선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 전자책 구입: 국내 주요 서점 리디북스, 아마존닷컴(amazon.com), Google Play, iBookstore
-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종이책 구입 가능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정기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1부 대예배	오전 10:00	각 성전
주일 2부 대예배	오전 11:30	각 성전
주일 저녁 예배	오후 3:00	각 성전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9:00	각 성전, 북부·강동지성전
빛과소금 요식업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11:00	각 성전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00	각 성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00	각 성전
새벽예배	매 일 오전 5:00	각 성전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화요일 오후 8:30	각 성전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수요일 오후 9:00	각 성전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각 성전
아동주일학교(주일예배)	대예배/ 오전 11:40 저녁예배/ 오후 1:30	

※ 예배시간 및 관련 문의 : 만민중앙교회 기획실 ☎ 02-818-7236